

월요논단



양영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잘못된 만남이 빚어낸 인구절벽 시대

잘못된 만남은 예상외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경제대상이다. 특히 전문가들의 잘못된 만남은 행정에서는 그 영향이 국가의 운명까지 직결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이 전문가의 잘못된 만남 정책사태가 인구정책이다. 최근 우리는 인구절벽시대에 살고 있다. 1960년도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증가율 3%,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수)이 6명이었다. 이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엔으로부터 인구감소를 위한 대책을 세우라는 권유를 수도 없이 받았던 나라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인구를 줄이지 않겠다는 경제발전 전략을 기억할 수 없다는 신앙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는 출산력을 강하게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집단이 있었다. 이 집단은 당시의 의사중에 예방과 보건행정을 전공하는 기초의학자들이었다. 이들은 작은 의사는 병을, 중간 의사는 사람, 큰 의사는 나라를 고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야말로 돈보다 명예를 선택한 큰 의사(대의)라면서 자부심이 대단했다. 혁명을 일으킨 군인들 역시 자신들이야말로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혁명한 군인 중에 군인이라고 역시 자부심이 대단했다. 혁명군인들은 돈보다 국가를 치료하겠다고 명예를 선택한 기초의학계 의사들을 동지로 여겼을 것임은 당연하다. 인구정책은 이 두 집단의 만남에 의해서 시작됐다.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두 전문가 집단의 결합은 제동장치가 풀린 자동차 마냥 아무런 장애 없이 고속 질주했다. 이 두 집단이 얼마나 강하게 출산억제를 했는지, 시작하자 22년째인 1984년에는 합계출산율은 2.1명 수준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제동이 풀린 이 두 집단은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고 더욱 강하게 출산억제정책을 밀어붙였다. 인권도 없었다. 한 자식만 남아 기르자는 국가인구정책에 어긋나는 자는 반동분자처럼 취급했다. 남성이 가는 곳곳에는 정관수술을, 여성에게는 집까지 찾아가면서 난관수술을 강권했다. 한 자녀를 가진 가정은 불임수술 대상이었다. 소위 말하는 씨를 말리는 정책이 1995년도까지 33년간 진행됐으니 지금의 인구절벽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1.3명이면 인구정책이 매우 실패한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된다. 한국은 2002년 1.17명에서

최근 통계청 발표는 0.98명까지 가고 있다. 일본도 2000년도에 초저출산국가로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1.40명으로 탈출했다.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만들어 5년 단위계획을 세우면서 출산 부양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간 30조원까지 투입하고 있지만 초저출산국가에서 탈출은 고사하고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오직 합집만을 추구하는 군인출신 박정희·전두환 정부와 인구정책은 '피임과 불임에 의한 출산억제정책'이다'라는 소수 의료인들의 잘못된 만남이 국민의 수준인 인구절벽국가로 만들었다. 보육만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금의 인구정책은 역시 실패로 예상된다. 개방된, 그리고 다양한 눈과 귀를 가진 전문가들의 만남이야말로 선순환의 정책과정을 이끄는 기본임을 재삼 인식하게 하는 사례들이다.

열린마당

친절이란 무엇일까



고석만 제주친절문화발전연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공동체든 이상적인 롤 모델을 제시한다. 원로작가 김훈 선생은 최근 사회 세대에 대해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남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 없다"고 일갈하며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인격의 최고 목표로 친절을 꼽았다. 그렇다면 친절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할까? 국어사전에는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이라고 되어 있으나 시대흐름은 이 이상의 새로운 친절관을 요구하고 있다. 무소유 문명정신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친절이라고 하면서 타인에 대한 친절을 최고의 덕목으로 보며 생활속 친절에 주목하기도 했다.

한편, 경제활동을 하는 업종에서는 친절도 진단과 역량강화를 위한 친절서비스모니터링 평가제도를 시행한다. 그 제도가 돈벌이수단 성격이 더 강한 까닭에 사람보다 비즈니스를 위한 치밀한 연기를 요구하면서 친절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즉 사람중심의 친절관으로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친절하게 섬길 대상은 값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친절을 '올바른 인성과 공감적 소통능력을 통해 지혜롭게 대하는 태도'라고 보다 넓게 정의하고 싶다. 결국 친절은 곧 높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 건강한 인성과 공감능력을 통한 지혜가 더해진다면 보다 나은 생활문화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 시대의 이상적인 인격의 롤 모델로 '친절한 민주시민'을 제시하고 싶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도. 친절이 모든 인류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로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평화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추석연휴 이후 돼지열병·체전 등 '동분서주'

원 지사, 현장 홍보 강행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올 추석연휴 이후 '개발에 땀나뒀' 한 주를 보내며 동분서주. 원 지사는 16일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담화문 발표 및 현장방문과 긴급대책회의를, 이튿날은 방역협의회, 여성대회,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해 격려와 당부의 메시지를 전달. 20일도 범도민안전체험 한마당과 4·3유적행사, 전국체전 선수단 결단식, 검역현장 방문과 21일부터는 태풍 북상으로 상황판단회의 및 위험지역 점검 등 강행군. 조상윤기자

합작인 자원체계를 구축해 지역 사회 치매예방관리사업의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오순옥 제주시동부보건소장은 "치매는 사회전체의 문제로 지역 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발맞춰야 한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 고대로기자

동부보건소 치매예방 표창

○...제주시 동부보건소가 20일 제 12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치매프로그램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 동부보건소는 그동안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치매관리의 통

학교장 등 성폭력 예방 교육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지난 20일 학교장 등 학교상당인력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 지원청은 이날 이현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를 초빙해 서귀포시 관내 교장(교감)과 초·중·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전문·학

사설

산지전자경매로 농산물 유통혁신 이뤄야

전국 최초로 제주에 도입된 산지 전자경매가 올해부터 농산물 전 체로 확대됩니다. 산지전자경매는 온라인 전자시스템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지에서 소비자로 직접 배송하는 거래 제도를 말합니다. 이게 올해부터는 감귤과 월동 무에 이어 제주산 농산물 전품목으로 늘어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6년 11월 전국 최초로 산지전자경매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육지부 매매 참가인들이 매일 산지전자경매시스템을 통해 상품의 사진과 수량 등을 확인해 가격을 제시하고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받는 방식입니다. 이 산지전자경매는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14곳에 불과했던 도내 출하조직이 현재 33곳으로 늘었습니다. 도와 매매 참가인도 2017년 136곳에서 현재 188곳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산지전자경매를 통해 거래된 노지온주(10kg)의 경우

농가수취가격은 도매시장보다 3627원 높았고, 유통비용은 544원 줄었습니다. 품목별 농가수취가격을 보면 세척무(20kg) 20%, 당근(20kg) 19%, 양배추(8kg) 8% 늘어나는 효과를 봤습니다. 산지전자경매가 올해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되면서 제주형 유통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기대됩니다. 소비자와 판매자, 생산자가 모두 상생하는 유통시스템으로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입니다.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살 수 있고, 판매자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는 유통과정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유통 방식입니다. 올해부터는 거래 횟수도 하루 1회에서 2회로 늘어났습니다. 산지 전자경매가 앞으로 더욱 확대, 제주 1차산업의 유통혁신을 이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청정제주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농산물이 제 값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의회 제동걸린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

주민들간 찬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사업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 제위는 지난 19일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심사보류 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앞바다 5.46㎢를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로 지정, 5.56MW급 풍력발전기 18기(발전설비용량 100MW)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7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도는 지난 2012년부터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을 추진했습니다. 2015년에 이어 이번에도 또다시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성을 사전 확보하기 위한 적시시설용량은 200MW에서 100MW로, 면적은 29㎢에서 5.46㎢로 계획

을 축소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와 사업자 측은 가장 중요한 주민 공감대 확보 등도 민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습니다. 도는 도의원들의 질타에 "민간 사업이라 오히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이제라도 조율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도의원들도 "도의회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너무나 무책임한 안일한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황금어장이 사라지고, 해양생태계 파괴와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서식환경에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설명회 없이 지구 지정을 강행하려는 행태에 대한 반발이 큼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 수용성과 주민 반발로 처음 추진 당시보다 극적인 소통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고 고윤철(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 아버지 제주고교 공후(향년 85세)께서 서기 2019년 9월 22일 11시 29분경에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 드립니다. ▶일 포: 2019년 9월 24일(화) ▶발인일시: 2019년 9월 25일(수) 오전 8시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 3분향실 ▶장 차: 애월읍 봉성리 가족묘지 부인 문영자 아 들 고윤철 며느리 차민경 딸 고선사 사 위 오광철 선사 오광철 선미 문경환 손 너 고유빈 외손녀 오현수 유연 현영 외손자 오충재 문재원 충민 상윤 문규보 *연락처: 고윤철 010-5699-1662 고선심 010-6788-7441 고선자 010-3016-7757 고선미 010-8474-1185

부고 소영진·영근(합흥면옥) 아버지 익산소공 전환(요섭·향년 87세)께서 서기 2019년 9월 21일 오후 8시 30분경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종 하셨습니다. ▶일 포: 2019년 9월 24일(화) ▶발인일시: 2019년 9월 25일(수) 장례미사: 오전 10시 천주교 동문성당 ▶빈 소: 천주교 동문성당 (064-757-8866) ▶장 차: 양지공원-아름아름골 선영 부인 안창일(아혜스) 아 들 소영진 며느리 부미정 소영근 김경미 소영준 김연숙 소영문(故) 사 위 함승엽 소희영 사 위 함승형 아영 김두형 미영 김지호 손 자 소중환 외손자 함중석 김태윤 손 자 소철석 영범 손 자 소준성 영조 손 자 소유진 양창진 손 자 소유진 창은 손 자 소유진 한수연 손 자 소유진 지수 김효정 *연락처: 소영진 010-2958-3360 소영근 010-2047-6115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김해림씨 창화(향년 98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9월 23일 아 들 문군일 며느리 양영자 군옥 김혜숙 제일 최숙미 제관 구연선 딸 문준숙 군자 사 위 고천년 애선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신현강씨 람수(향년 85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9월 23일 남편 박태보 며느리 오순금 아 들 박명준 명화 강진영 딸 박순심 사 위 고태곤 순미 오향실 순봉 오영준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 751-0045

전세 렌터카 2018. 12. 17. 제23회 소비자의날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평가 대상 수상 4년동안 타던 차를 반납하면 전세보증금처럼 새차 탈때 낸 금액을 100% 돌려 받는 새로운 렌터카 서비스 당신의 자산과 가치를 지켜주는 케어크의 시작 전세렌터카로 같이타세요! 차고지증명제가 필요없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타는 방식으로 자산을 지키세요! 개인, 법인 사업자 경비 처리됨! 매월 관리비와 기름값으로 품용선 차량을 탈 수 있다. 주행거리 제한 없는 상품 우리가족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 고객의 신용상태 상관없이 이용가능 무료정비서비스는 S정비업체 사고처리는 S화재 4년마다 원하는 신모텔 차량을 순환으로 탈 수 있다. 4년 뒤 보증금 100% 환불! 이젠 자동차는 소유가 아니라 편리하고 경제적인 사용의 개념으로 보셔야 할때! 내가 원하는 국내 수입차 전차종 가능... 정비 보험 정비보험 사기보증금